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



2024. 9.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운영심의위원회

I 구성 현황

연구단체명 : 미래교육정책TF

○ 구성의원 : 우종혁, 이동호, 이도희, 이향숙, 한윤수, 노애자, 이성수

과 제 명 :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업무 역량 강화와 미래교실 발전모형 모델링

구성목적 : <OECD 학습나침반 2030>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최신 교육 개념은 기존의 시험과 입시 중심 교육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성장이 불가능함을 진단하고 있음.

이에 강남구의 교육이 시대에 뒤쳐지지 않고, 가장 앞선 첨단 교육을 선도적으로 지원해 구민들이 교육의 방향과 질에 안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대상 : 강남구,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의 연구 목적 유관 사업

연구내용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강남 교육의 통념과 현실
- 강남구 교육지원사업 분석
- 학습과학 기반의 교육혁신 전략 분석
- 교육혁신 선행 사례 분석
- 강남형 미래교육지원 정책 성공을 위한 제언

연구용역기간 : 2024. 3. 1. ~ 5. 31.

용역업체 : (사)미래교실네트워크

계약금액 : 20,000천원

II

연구 활동

□ 착수보고 : 서면 제출

□ 중간보고 : 간담회 실시

○ 일 시 : 2024. 5. 13.(월) 오후 2시

○ 장 소 : 우종혁의원 연구실

○ 참석자 : 우종혁 의원 및 용역사 정찬필 사무총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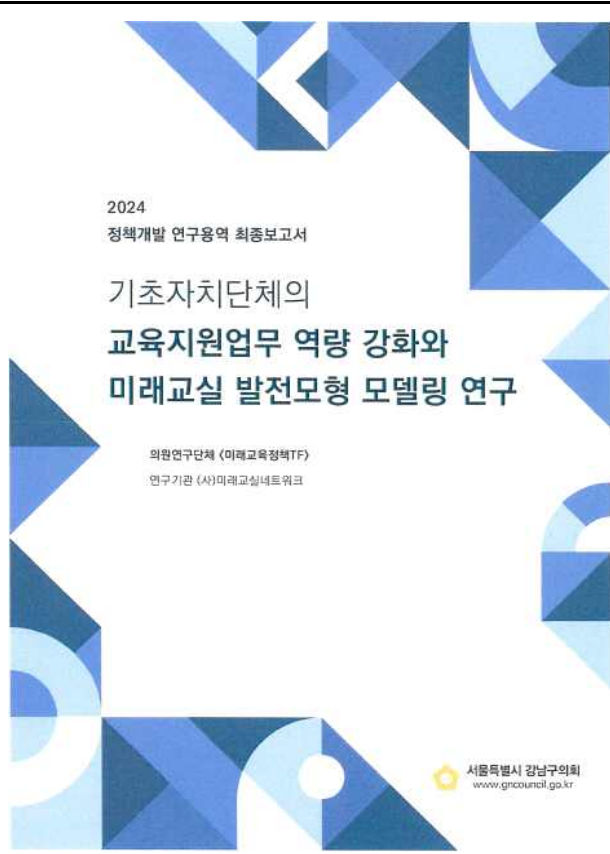
○ 보고 및 논의내용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강남 교육의 통념과 현실
- 강남구 교육지원사업 분석
- 학습과학 기반의 교육혁신 전략 분석
- 강남형 미래교육지원 정책 성공을 위한 제언
- 연구용역보고서 제출 전 최종 연구 결과 논의

○ 활동사진



□ **최종연구결과**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인쇄물)는 의원연구실로 미리 배부**



제 출 문

미래교육정책TF 연구단체 귀하

이 보고서를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업무 역량 강화와 미래교실 발전 모형 모델링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

- 제안의원 : 우종혁, 이동호, 한운수, 이향숙, 이도희, 노애자, 이성수
- 연구기관 : (사)미래교실네트워크
- 책임연구원 : 이민경(대구대 사범대 교직부, 교수)
- 연구원 : 정찬필(미래교실네트워크 사무총장)
임은의(극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조연구원 : 김순중(미래교실네트워크 교육기획팀장)
문영중(미래교실네트워크 교육운영매니저)
- 자문위원 : 최명숙 (미래교실네트워크, 대표이사)

< 목 차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2. 연구개요	7
I. 서론	5
II. 강남교육의 특징과 현실	7
1. 교육1번지 강남의 이민: 공허한 무한경쟁과 부작용	7
2. 과도한 교육열과 시대체제의 이중 수렁	15
3. 강남 아이들은 VUCA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가?	21
III. 강남구 교육지원사업 분석	25
1. 강남구 교육지원 현황	25
2. 강남구 교육지원사업 분석현황	32
IV. 미래교육이란 무엇인가?	39
1. 미래 교육의 길라잡이 - OECD 학습 나침반 2030	39
2. 배움 이니 해법을 통한 역량의 성장	41
3. 학생 주도성 Student Agency, 그리고 학교의 한계	42
V. 학습과학 기반의 교육 혁신 전략 분석	44
1. 교육 난제 치유의 열쇠, 학습과학(Learning Science)	44
2. 배움의 뇌와 학습자 주도적 교육	45
VI. 교육혁신 실행 사례 분석	51
1. AI 시대의 개막과 거꾸로교실에 대한 재조명	52
2. 학습과학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 서울시교육청 도약캠프	59
3. 지역 기반 교육공동체 (미래교실 토래학교)	69
VII. 강남형 미래교육지원 정책 성공을 위한 제언	77
1. '전국 최대 교육지원금 지자체'의 역설, 강남스타일의 함정	77
2. 시뮬레이션: 사교육 메카의 미래교육 혁명	83

VII. 강남형 미래교육지원 정책 성공을 위한 제언

1. '전국 최대 교육지원금 지자체'의 역설, 강남스타일의 함정

교육의 기본 목적이 시대에 맞는 가치 있는 인재로 성장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지만, 지식 습득 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교육 경쟁에 내몰리는 강남 교육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치열한 경쟁의 교육문화 속에서 강남구 학생들의 겪는 정서적 어려움도 큰 문제이지만, 불안정한 현대 사회의 VUCA적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강남스타일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경쟁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우월적 위치를 점하게 되더라도, 실제로 성인이 되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 혹은 소프트 스킬의 성장에는 실패할 위험이 대단히 큰 상황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한다면, 현재 강남구에서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 교육지원금 투입 지자체'의 위상은 역설적으로 잃힐 수 있다. 예컨대, 인터넷 수능강의처럼 기존 시험 성적 중심의 교육의 반복 혹은 강화에 집중하는 정책이라면, 이는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하는데 북쪽으로 전력질주하며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것에 비유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험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책 실행의 기준으로 살아야 할 교육의 방향성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지구의 자성이 바뀌어 나침반의 방향이 뒤를러듯이 지난 수 십년간 기준으로 삼았던 교육의 방향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가 되면서, 그간의 관성적인 전략과 정책으로는 원하는 교육 정책의 성과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함정에 빠진 것은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교육 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자신있게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OECD의 교육역량국이 2019년에 <학습나침반 2030>이라는 새로운 교육의 개념을 내놓은 것은 어딘가에 올바른 교육의 모델이 있어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최원국인 선진국 어느 나라도 시대에 맞는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향을 찾지 못하는 세계의 교육에 기준이 되는 나침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OECD 교육정책의 수장 안드레아스 쉐라이어는 2019년 학습나침반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이 시대 교육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도구임을 강조한 바 있다.